

• 회원사소식 •

회원사소식

하림, 체리부로식품  
닭고기 수출 본격화



마니커에 이어 하림, 체리부로식품 대일 닭고기 수출전선에 본격 가담했다.(주)체리부로식품은 12월 6일 일본의 스미킹물산(주)로 닭고기 통닭(11호,12호,13호) 10,000수를 부산항을 통해 일본으로 출항 시켰다.

체리부로식품의 이번 닭고기 수출은 신선하고 위생적인 닭고기만을 생산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로 이미 HACCP, KS인증을 획득했으며, 이를 통해 위생과 안전적인 면에서 수출이 쉽지 않은 일본에 체리부로라는 브랜드로 닭고기를 수출하게 된 것이다.

체리부로식품 관계자는 "창업 10년만에 체리부로가 우리나라 닭고기 역사에 한페이지를 장식하게 됐다"고 밝혔다. 국내의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꾸준한 매출신장을 보인 (주)체리부로식품의 올해는 동종업계의 부러움을 한몸에 받을만큼 엄청난 발전이 있었다.

구미, 장성 도계장 인수를 필두로 중원농장 인수, 원종계 사업시작, 육가공 제품의 출시에 이어 이번 닭고기 대일 수출에 이르기까지 일사천리로 사업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관련 체리부로식품 김인식 대표이사는 "닭고기(지육) 이외에도 부분육을 비롯한 냉동제품의 대일 수출이 곧 이루어 질 것이다. 이는 체리부로식품 전 사원이 하나되어 열심히 일 해주었기 때문이다"며 직원들에게 격려를 잊지 않았다.

한편 일본 닭고기 소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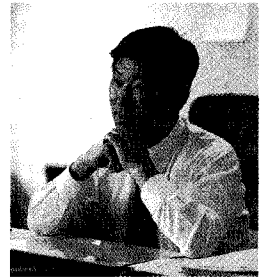
시장으로의 본격적인 진출을 위

해 치밀한 준비해왔던 (주)하림(대표 김홍국)도 6일 냉동통닭 18.5톤을 수출한데 이어 7일 냉동간, 냉동연골 10톤, 8일 냉동삼계탕 5.2톤, 15일 냉동 통닭 10톤 등 총 43.7톤 등 약 10만달러 어치의 닭고기를 일본으로 수출했다.

수직계열화 시스템 기반  
축산 전문기업군 하림그룹 출범

사료부터 가공, 판매까지  
완스톱의 새 패러다임주목

(주)하림이 관계사 및 계열사를 재정비, 하림그룹(회장 金弘國, www.halim.co.kr)으로 출범했다. 새 그룹은 기존 (주)하림의



닭고기 사업을 주축으로 하는 축산전문 계열화 기업군이란 점에서 재계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이 회사는 사료·부화·사육·도계·육가공·판매 사업부문의 기존 사업부 및 사업체를 기반으로 국내 굴지의 사료업체인 제일사료(주) 및 제일곡산(주)과 전략적인 제휴 합병을 한 데 이어 영남 및 충남지역에 도계업체를 설립하면서 최근 늘어난 관계사 및 계열사들을 전문 그룹체제로 통합한다고 발표했다.

하림그룹은 7일, 김홍국 사장이 회장에 취임하면서 통합경영 체제를 본격적으로 출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일사료(주) 김영옥 대표이사가 그룹 부회장을 겸임하고, (주)하림 이문용 총괄부사장이 (주)하림 사장으로 승진하며, 제일곡산(주) 이

# 회원사소식

하림 대표이사가 그룹 재정 담당 부사장을 맡아 그룹의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게 된다.

이처럼 하림그룹이 통합경영 시스템을 도입한 것은 기존 사업부 및 직계·방계 사업체들의 네트워크화를 지향한 것이다. 그 동안 계열화의 필요에 따라 기업체를 신설 또는 인수해 온 것을 하나의 시스템 안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는 데 가장 큰 의의가 있다.

즉, 사료에서 부화, 사육, 도계, 신선육 가공, 가공육 생산, 판매에 이르기까지 일원화한 온·라인 및 원-스톱 관리 경영이 가능해 진다는 점에서 그 성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전문 계열화의 필요에 따라 기존 사업체의 전문성을 살리거나 직 경영 체제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 점에서 기존 대기업들의 문어발식 지배체제나 확장 일변도 그룹화와는 성격을 달리하고 있다.

한편 회사측은 2002년도를 통합경영 시스템 완성의 해로 잡고 새롭게 방계 계열사로 편입된 기업체들을 재정비하여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 해당 분야별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사업체로 성장시킨다는 목표를 세웠다. 또한 통합경영을 통하여 합리적 관리시스템 도입 및 고부가가치화를 실현함으로써 수익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 인사동정

(주)하림 김홍국(金弘國) 대표이사는 7일, 하림그룹 대표이사 회장에 취임했다. 회사는 최근 관계회사의 계열화 통합경영을 위한 그룹 출범에 따라 이번 승진인사를 단행했다.

하림그룹은 (주)하림과제일사료(주), 제일곡산(주), (주)하림천하 등을 계열사로 편입, 전문축산기업군으로 통합경영을 전개할 계획이다.

## (주)하림 및 관계사 기업인사

▲하림그룹 대표이사 회장 김홍국 ▲(주)제일사료 대표이사 겸 하림그룹 부회장 김영욱 ▲하림그룹 사장 이문용 ▲(주)제일곡산 대표이사 겸 그룹 재정담당 부사장 이호림

## 마니커 지난 8일자 매출 1000억원 돌파 ... 전년대비 40% 증가

최근 국내산 닭고기 신선육의 일본 수출로 호조를 보이고 있는 마니커(대표 한형석)가 지난 8일자로 매출액 1000억원을 돌파했다.

이에따라 연말까지는 1100억원 정도의 매출 증가가 예상되고 있으며 순이익도 작년대비 30%가 증가한 30억원 정도가 예상된다.

마니커의 이같은 매출증가는 국내 패스트푸드점의 증가와 광우병, 구제역 여파로 인한 국내산 신선 닭고기 소비의 증가, 계육가공식품시장의 활성화 등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관계자들은 분석하고 있다.

이와관련 (주)마니커의 한형석사장은 『금년 경산에 위치한 육가공 공장의 증설과 HACCP를 획득한 동두천, 용인 도계공장의 증설등을 위해 약 100억원 가량의 설비투자를 하면서 신선 닭고기의 공급과 육가공 소비시장의 확대에 대처해온 것이 주요한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한사장은 『내년의 경우 전세계적으로 닭고기 소비는 늘어나는데 반해 일본의 경우 질병과 품질상의 이유로 중국 및 미국산 닭고기 수입을 제한하고 있어 우리나라가 닭고기 수출물량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도계라인의 증설 등 지속적인 설비투자를 바탕으로 고품질의 닭고기 생산과 수출에 주력할 것』임을 시사했다. C